'갓성비' 中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급부상에 K-배터리 긴장

한국자동차연구원보고서 발표···국내 자동차 업계 장착 사례 급증 글로벌 경쟁력 우위 확보위해 기술·경쟁력 등 미래전략 마련해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중국산 나 트륨 이온 배터리가 전기차의 새 선택지로 부상하 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도 미래 전략 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내 일부 전기차에도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의 기술적 우위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산업 분석 '나트륨, EV 확산의 새 동력이 될 것인가'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CATL은 최근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공개하며 양산을 공식화했다. 초기에는 대형 화물차용 시동 배터리에 공급하고 향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구동용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원소재가 풍부하고 열·화학적 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전기차 배터리로 많이 활용된 리튬 이온 배터리와 유사한 구조로 기존 생산 라인·기술과의 연계가 유리해 배터리

제조사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리튬 이온인 삼원계 (NCM·NCA),리튬인산철(LFP)과나트륨이온 으로 구성돼 있다.

삼원계 배터리는 생산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고가 원재료와 복잡한 제조 공정 탓에 가격 부담이 크고 리튬 원광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힌다. 실제로 리튬은 호주·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채굴되지만 전기차용 고순도 제련 물량의 65% 이상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삼원계 대비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기준 전기 차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나트 륨 이온 배터리가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 했다. 보고서는 "LFP 배터리의 전기차 점유율 확 대 사례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서 재현될 가능성 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차의 중국산 배터리 사용 비중이 상당한 데

다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배터리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공급망 불안정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 중국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상용화에 성 공한다면 글로벌 배터리 시장 내 중국의 주도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기차 소유자 SNS 등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도 같은 중국산이라면 저렴한 배터리가 탑재돼 가 격이 싼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의견이 퍼지고 있 다.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제조원가의 3분의 1 이 상을 차지하는 만큼 저비용·장수명 배터리의 등장 은 전기차 가격 인하와 시장 확대의 변수가 될 가 능성도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는 기술적 우 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성, 공급망 안정성, 환 경적 지속가능성을 두루 갖춘 배터리 전략을 마련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보고서는 "국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우 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간의 삼원계 중심 전략이 보 여준 한계를 고려해 장기적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 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기술개발 전략 은 단순히 성능 지표 우위뿐 아니라 경제성, 공급 망 변동 대응 능력까지 포괄하는 균형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자동차 '더 뉴 엘란트라 N TCR(국내명 더 뉴 아반떼 N TCR)'이 지난 12~14일(현지시간) 열린 '2025 TCR 월드투어' 5라운드 호주 대회에서 트랙을 달리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 '더 뉴 아반떼 N' TCR 월드투어 5R 우승

시즌 3번째 우승…팀 종합 순위 2위

현대차는 "'더 뉴 엘란트라 N TCR(국내명 더 뉴 아반떼 N TCR)'이 지난 12~14일(현지시간) 호주 테일럼 벤드에서 열린 '2025 TCR 월드투 어' 5라운드 우승을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 시즌 세번째 우승이다.

TCR 월드투어는 제조사가 아닌 제조사의 경주 차를 구매한 프로 레이싱팀이 출전하는 커스터머 레이싱(Customer Racing) 대회로 한국을 포함해 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중국 등에서 총 8라운드가 진행된다.

더 뉴 엘란트라 N TCR 경주차로 출전한 'BRC 현대 N 스쿼드라 코르세' 팀의 노버트 미첼리즈

선수는 지난 13일 치러진 첫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같은 팀 네스토르 지로라미 선수도 14일 두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1위에 올랐다.

미첼리즈 선수는 이번 레이스 우승으로 올해 시즌 드라이버 순위 5위로 올랐고 같은 팀 지로라미선수와 미켈 아즈코나 선수는 각각 6위와 10위를 기록했다.

BRC 현대 N 스쿼드라 코르세팀은 소속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이번 라운드까지 총 458포인트를 획득해 팀 부문 종합 순위 2위를 차지했다.

TCR 월드투어 6라운드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린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금호타이어, 자율주행차·에어리스 타이어 개발 나선다

에이투지와 기술개발・공급 협약

금호타이어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에이투지) 와 '자율주행차 미래형 타이어 기술개발 및 공급 업 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약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 타이어, 에어리스(Airless) 타이어 공동 개발 사업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에이투지는 최근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기업 세계 11위에 오르며 국내 유일 상위권 진입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진짜 산-연 협력 R&D 과제'에도 선정됐으며, 해당 과제는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출연 연구기관이 협력해 연구개발, 기술 이전까지 확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기업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신성장 동력 창출 R&D 모델이라는 것이 금호타이어의 설명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과제를 통해 4년 이내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타이어 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미래형 타이어 중 스마트 센서 기반 타이어와 에어리스 타이어 기술은 자율 주행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앞으로 에이투 지의 한국형 레벨4 자율주행차인 '로이'에 타이어 를 공급한다. 로이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에 투입돼 전 세계에 소개될 예정이다. 로이는 정 부 인증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에이 투지는 서울 청계천에서도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타이어는 미래 모빌리티의 진화 속에서 더 이상 주행을 보조 하는 부품이 아니라 차량의 성능과 안전, 에너지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차별화된 기술 력으로 미래 지향적인 모빌리티 기능성을 확장하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기자 khn@

"편의사양 강화"…기아, 더 2026 카니발 하이리무진 출시

가솔린 모델 '9인승 노블레스' 추가

기아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연식 변경 모델인 '더 2026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출시했다"고 15일

기아는 편의사양을 강화해 고급스러움을 높이 고 신규 트림을 추가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차세대 인포테인 먼트 시스템(ccNC) 테마의 최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가 적용됐고 보스(BOSE) 프 리미엄 사운드(12스피커)가 선택 사양으로 신규 운영된다. 줄무늬 패턴을 적용한 고급형 카 매트 와 뒷좌석 측·후면의 주름식 커튼은 고급스러운 분 위기를 연출했다.

'3.5 가솔린'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있으며 가솔린 모델에는 엔트리 트림인 '9인승 노블레스'가 새로 추가됐다.

기아 관계자는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상품성을 강화하고 3.5 가솔린 모델에 노블레스 트림을 추가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국내 대표 프리미엄 리무진으로서 가족과 법인 고객 모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기자 khn@kwangju.co.kr

"차량 내 금연"…쏘카, 흡연 근절 프로그램 가동

흡연 1회 적발 시 이용 제한 10만원 페널티·세차 비용 청구

먼저 차에서 흡연한 경우 이용 정지 기준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변경해 흡연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 터 즉시 쏘카 이용을 제한한다.

이용 제한과 함께 10만원의 페널티와 차량 위생 원복을 위한 특수세차 비용을 별도로 청구한다. 흡연 신고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흡연 장면을 신고한 쏘카 회원에게는 기존 3 만 크레딧에서 5배 늘어난 15만 크레딧을 지급 안다. 흐(

흡연 신고는 연기, 담뱃불 등 흡연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장면과 차량 번호판을 함께 찍은 사진 또는 영상을 쏘카 앱 고객센터의 '제출 및 신청' 메뉴에서 제출하면 된다.

소키는 지난달 중순부터 2주간 개편된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직전 2주 대비 이용 정지까지 이어진 적발 건수는 34.2% 증가했다. 전체 신고 건수는 30.9% 늘었다.

문정웅 소카 새로운이동그룹장은 "성숙한 카셰 어링 문화 조성을 위한 이용 질서 강화 정책의 일 환으로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신고 보상 확대,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종합적인 노력 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